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8월 후원미사는 22일, 8월 후원미사는 셋째 주 월요일(1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넷째 주 월요일(22일)에 봉헌합니다.

9월 후원미사는 19일, 10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6년 6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4,829,799	전월이월금	1,862,409
지 로	3,267,890	우리은행	7,851,000
국민은행	5,527,000	하나은행	1,341,000
조흥은행	150,000	신한은행	1,870,000
외환은행	412,500	제일은행	240,000
농 협	1,590,000	기업은행	338,000
우 체 국	80,000	지정기탁	57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베들레헴어린이집	11,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단 체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3,4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7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2,621,36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57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1,686,360	잔액(이월금)	3,143,439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6. 7 / 제1호

펴낸날 2016. 7.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형제들에게 관심을...

요즘은 방송을 통해 신학교의 삶이 많이 소개되어 대부분의 교우분들이 사제 양성과정을 조금은 알고 계십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학업 사이사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아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삶에서 매일 저녁 시간, 모든 신학생들은 대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과 만남, 혹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학업과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유명합니다. 그러다보니 답답하지 않냐, 내규가 엄격하기에 재미없지 않냐 하는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만 모여 살며 가장 진지하고 엄격할 것 같은 신학교에도 내규의 예외 규정들이 있기에 웃음이 가득한 일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형제들에게 관심을..."이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신학교의 한 기숙사에 실시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침묵의 소요함이 절정을 달하는 저녁 11시에는 신학교의 모든 전등의 불을 끄고 모두가 취침에 듭니다. 그러면 10시 50분부터 소등과 취침 준비를 위한 신호로 조용한 음악이 10분간 나옵니다. 이 음악이 끝나면 기숙사 내의 모든 전등은 불을 끄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취침 준비 음악을 들으며 묵다한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침대에 눕게 됩니다. 그렇게 밤 11시, 모든 신학생이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그날의 담당 신학생은 조용히 방송실 마이크를 켭니다. 그리고 마지막하게 "형제들에게 관심을..."이라 말하며 짧은 방송을 시작합니다. 엄격한 대침묵 유지되는 시간에 전체 방송을 한다는 것이 조금 역설적이지만, 이 시간은 잡자리에 든 다른 신학생들에게 다음 날 복음을 읽어주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읽기 전에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짧은 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기운 없어 보이는 00이 형. 기운내세요... 오늘 병원 외출했던 00이는 어땠는지 궁금한데, 오늘 밤 폭 자길 바래요... 제 방에서 커피믹스 가져가신 00야! 이자는 안 받을테니 얼른 채워 넣어라.. 등등, 하루를 살며 조금은 소홀했던 동료, 선후배에게 방송으로나마 안부를 전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신학생들은 이불 속에서 킁킁 거리기도 하고, 진한 감동을 받으며 기운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관심을"이 끝나면 다음날 복음을 읽어주며 지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 밝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길 다짐하며 대침묵 시간 짧은 방송을 마칩니다.

사제가 되어 혼자 사제관에서 지내며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갖고, 정확한 시간에 취침에 들지 못하는 삶이다보니 종종 신학교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형제들이 들려주던 복음과 서로에 대한 관심과 격려의 방송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방송실에 조그만 손전등 하나 켜고 독백으로 짧은 글을 하나 읽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정말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 대침묵이 끝나면 식당에서는 지난밤 있었던 "형제들에게 관심을" 방송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서로 관심과 안부를 나누게 되는 것은 보너스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일은 뭐 해야 하고, 다음 주까지 처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약속과 일정들 안에서 분주하게 보내기에 가족, 친지, 이웃, 혹은 사회와 국가, 인류공동체의 안녕에는 너무나 무관심 한 것이 아닐까요? 매년 1월 1일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세계 교회가 기념하는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매년 세계 평화의 날에는 교황님께서 메시지를 발표하시는데,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의 주제는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십시오"입니다.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 받아 읽을 수 있으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듯, 우리도 형제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작게는 가정과 일터 안에서, 넓게는 세계와 인류 공동체 안에서 폭력과 불평등은 사라지고 웃음과 배려가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관심을..." 지금 우리부터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공동체 소식



몽골공동체 미사*

지난 6월 19일에 몽골 울란바토르 교구 벤스 바달라 주교님과 대전교구 김성현 신부님께서 몽골공동체미사를 집전해주셨습니다. 이 미사에 20여명의 몽골인이 참여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함께 한 몽골 부제님(영호)은 몽골의 첫 사제라고 합니다. 대전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오는 8월 28일에 몽골에서 사제서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몽골의 첫 사제로 어느 소임지에서든 주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신앙생활과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회원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고네공부방 캠프*

지난 6월 17~18일에 남창현 신부님과 김평안 신부님 인솔로 마고네 공부방 아이들 10명이 충북 제천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의 기회가 없는 공부방 아이들은 이번 캠프로 친구들과의 친교와 협동정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 소아과 무료건강검진



▲ 소방훈련

신학생현장체험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대교구 신학과 4학년 신학생이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사명과 앞으로 사목자로서 가져야 할 입장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사목 실습을 나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과 마고네 공부방의 아이들과 놀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으며, 베다니아의 집 청소도 도와주셨습니다. 오신 학사님들 덕분에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쉼터가 깨끗해졌습니다. 더 운데 봉사해주신 학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육간 건강하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위원회 소식지 개편

2002년부터 발행한 이주사목위원회 소식지 '두손모음'이 2016년 7월호부터 '좋은이웃'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루카 복음서 10장 33-37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우리도 이주인에 대한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소식지를 개편하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화알림

ABOUT PHILIPPINES 필리핀*



- 공식명칭 /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기후 / 아열대성기후
- 인구 / 약 100,998,376명 (2015기준)
- 수도 / 마닐라
- 기념일

- 1월 새해 (1일)
- 2월 EDSA 혁명(People's Power Day) 기념일 (25일)¹⁾
- 3월 성 목요일 (28일), 성 금요일 (29일)
- 4월 바탄 기념일 (9일)²⁾
- 5월 노동절 (1일)
- 6월 독립기념일 (12일)³⁾
- 8월 아키노 기념일 (21일), 국가영웅일 (마지막 일요일)
- 11월 모든 성인 기념일 (1일), 보니파시오 기념일 (30일)
- 12월 크리스마스이브 (24일), 크리스마스 (25일), 리잘 기념일 (30일)

1) EDSA혁명(People's Power Day) 기념일(2월 25일)
대통령 마르코스는 1973년 대선에서, 3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계엄령을 선포하여 재임 기간을 연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마르코스 정권의 독재와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1986년 2월 23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EDSA를 비롯한 각 거리마다 맨몸으로 바리게이트를 구축하고 정부군과의 대치를 벌여 마르코스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바탄기념일(4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던 바탄 반도의 참극을 기억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마닐라만 서쪽 연안 필리핀 최고의 군사요충지였던 바탄 반도는 1942년 4월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필리핀·미국 연합군의 수많은 병사와 포로들이 갈증과 배고픔으로 죽어간 땅이다.

3) 독립기념일(6월 12일)
1571년부터 약 327년간 스페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고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미국에 패하면서 1898년 6월 12일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필리핀공동체*

필리핀공동체는 한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1995년 설립된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 소속된 국가별 공동체로 현재 필리핀외방선교회 소속 알프레도 신부(Fr. Alfredo G. Africa Jr., MSP)가 담당사제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사목분과(전례분과, 교육분과, 재정분과, 성체분과, 정의평화분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분과, 기술정보분과 그리고 필리핀외방선교회와 매우 밀접한 평신도 단체인 FMAA(필리핀선교 보조회)가 있으며 이 분과에는 170여 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공동체는 **매주 일요일 해화동 성당에서 오후 1시 30분에 미사를 집전**하고, 대림동 소공동체를 조직하여 매주 일 대림동(돈보스코 센터 직업학교 강당)에서 오전 11시 30분에 미사를 집전하며 평신도 기도모임인 '엘사다이' 회원을 위한 미사를 마장동(성동복지관)에서 집전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과 사목분과 봉사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피정과 성서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함께 하는 이주 노동자와 봉사자들의 개인적 영적성장을 돕는다.